

## LG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대중화 나선다



LG전자가 안드로이드 탑재폰 '옵티머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대중화에 나선다.

'옵티머스(Optimus)'는 '최선, 최상'을 뜻하는 라틴어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남미, CIS, 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순차 출시한다.

'옵티머스(모델명: LG-GT540)'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초기 사용자들을 배려한 쉬운 사용환경을 제공한다.

고객 맞춤형 사용자 환경과 편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능을 적용했다.

바탕화면을 3개부터 최대 7개까지 확장할 수 있고, 메뉴 카테고리를 10개까지 분류/설정 가능해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용자 기분에 따라 블랙커피, 비오는 날, 흰색 물결, 핑크 코코 등 4종의 바탕화면 중 선택할 수 있고, 뉴스, 날씨, 주식, SNS 등 다양한 위젯을 설정할 수 있다.

3인치 풀터치 스크린(감압식), 12.7mm의 얇은 두께와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유선형 디자인을 바탕으로, 물결을 형상화한 버튼을 더해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펄 느낌의 흰색, 검정, 실버, 분홍 4종으로 출시된다.

커뮤니티형 웹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의 계정을 통합 관리하는 'SNS 매니저(SNS Manager)'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이를 이용해 자신의 SNS사이트에 텍스트, 사진 등을 간

편하게 올릴 수 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선택하면 그 대상이 SNS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이나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 얼굴 인식(Auto Face-Tagging)' 기능을 탑재, 사진 속의 특정 얼굴을 선택해 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사진에서도 동일한 얼굴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얼굴을 터치하면 문자를 보내거나 SNS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있다.

이외에도 300만 화소 카메라, 디빅스(DivX)/Xvid 재생, 편리한 사진/동영상 편집 기능 등 멀티미디어 기능은 물론, 블루투스 2.1, 32 기가바이트(GB)까지 확장 가능한 외장 메모리 슬롯, FM라디오 등을 갖췄다.

LG전자 MC(Mobile Communications)사업본부장 안승권 사장은 "고객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성, 디자인 등을 배려한 스마트폰 제품을 통해 스마트폰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LG전자, 1분기 연결영업이익 5,294억 원

LG전자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연결기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연결매출과 연결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3% 늘어난 13조 6,998억 원, 5,294억 원을 기록했다.

또 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의 관계기업투자손익(옛 '지분법손익')이 전분기 대비 늘면서 1분기 연결순이익은 6,746억 원을 기록했다.

새 회계제도 적용으로 연결대상 종속회사에는 이전처럼 LG전자 해외법인, LG이노텍(해외법인 포함) 등이 유지되지만, 지분율 50% 미만인 LG디스플레이(해외법인 포함) 등 20개사는 제외됐다.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미만인 해외법인 등 19개사는 새로 추가됐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모두 104개로 기존 회계기준 105개와는 큰 차이가 없으나, LG디스플레이가 연결대상에서 제

외된 것이 새로운 회계제도를 채택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11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게 되지만 LG전자는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재무정보의 신뢰도 제고로 기업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 1년 앞선 2010회계연도부터 조기 도입했다.

### LG전자 본사와 해외법인만을 연결한 기준

매출(13조 1,589억 원)은 지난해보다 3% 늘며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평균환율이 지난해 1분기(1,409 원)에 고점을 찍은 후 올해 1분기(1,145원)까지 지속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 증가는 상당히 값진 성과다. 실제 달러기준 매출은 26%나 늘었다.

성수기가 아님에도 TV와 가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주면서 1분기 수익이 견조하게 나왔다. 1분기 영업이익은 4,88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 늘었다.

### 삼성전자, '아몰레드 빔' 출시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프로젝터폰인 '햅틱빔'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터 화질과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프로젝터폰 '아몰레드빔(SPH-W9600)'을 출시한다.

'햅틱빔'은 지난 해 2월 국내에 출시되어 프레젠테이션이 많은 직장인들과 영화를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었다.

'아몰레드빔'은 최대 50인치 대화면을 WVGA(800×480)급 고화질로 감상이 가능하며 기존 '햅틱빔' 대비 빔 프로젝터 해상도 2.5배, 화면 밝기도 1.5배 향상되어 밝은 실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프로젝터 특화 기능이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 파일 지원, 인터넷 화면 확대 기능 외에도 디빅스(DivX) 기능 지원을 통한 고해상도 영상 재생이 가능해 프레젠테이션이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다양한 그림과 사물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프로젝터 화면으로 보여 주는 '실물화상기', 알람 설정시 벨소리와 함께 대화면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시간을 보여 주는 '모닝빔', 다양한 컬러를 지원하는 손전등 기능 등 첨단 기능을 지원한다.

프로젝터 렌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젝터 덮개를 지원하며 기존 '햅틱빔' 대비 1.5 mm 얇아진 두께와 그림감을 향상시키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3.3형 WVGA AMOLED 탑재, 500만 화소 카메라, 지상파DMB, 블루투스, 최대 16GB 외장 메모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몰레드빔'은 '햅틱빔'에 이어 휴대폰의 혁신 기능에 대해 갈수록 높아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기존 '햅틱빔' 대비 보다 유용하고 재미있는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프로젝터와 휴대폰의 컨버전스 제품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모바일닷컴(kr.samsungmobile.com) 애니콜 혁신 제품 가상 체험 공간인 '이미제이션 스튜디오 (Imagination Studio)'에서는 주인공 닥터 애니(Any)가 '아몰레드 빔'의 프로젝터 기능으로 위기를 재치있게 모면하는

영상과 함께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만나 볼 수 있다.

### 삼성전자, '화질·디자인·친환경' 트렌드 이끌 차세대 LED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수준의 LED 기술을 적용한 58cm(23인치) 삼성 싱크마스터 LED 모니터(모델명:PX2370)를 출시해 모니터 업계의 '화질·디자인·친환경' 트렌드를 이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CE) 전시회인 CES 2010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삼성 싱크마스터 PX2370은 작년 7월 출시한 LED 모니터 XL2370보다 더욱 슬림한 디자인에 기능은 한층 강화됐다.

삼성 싱크마스터 LED 모니터 PX2370은 업계 최고의 LED 기술을 적용해 화질 진화를 이끄는 제품으로 평가된다.

PX2370은 LED 모니터 중 유일하게 웹 표준 색 공간인 sRGB를 100% 만족시켜, 기존의 모니터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던 색까지도 표시해 현실과 가까운 색을 구현한다.

카메라나 스캐너 등에서 보는 것과 가장 가까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모니터가 sRGB 90% 수준만 만족시키는 데 반해 PX2370은 색 표현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며 LED 시장의 표준을 한층 끌어 올렸다.

또한, 모니터 전면에 '매직 룩스(Magic Lux)'라는 인공지능형 조도 센서를 장착해 주위 조명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해준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 시야각을 더욱 넓혀 주는 '매직 앵글(Magic Angle)' 기능도 추가해 상하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정면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화질을 구현했다.

더불어 메가 동적 명암비와 2ms의 빠른 응답속도, 풀 HD(초고화질) 영상 구현, 16:9 비율의 와이드 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생생하고 실감나는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삼성만의 독자적인 ToC(Touch of Color) 이중사출 공법을 적용한 크리스탈 친환경 디자인의 베젤(테두리)은 깔끔하면서도 우아함이 돋보인다.

삼성전자는 투명한 이중 베젤을 통해 입체감을 주면서도 16.5mm(가장 얇은 부분)라는 초슬림 두께를 탄생시켰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디자인'을 콘셉트로 한 투명 슬림 스탠드 넥(목)은 모니터 화면이 마치 물위에 가볍게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중앙의 동그란 전원 버튼도 밤하늘의 달빛을 모티브로 하여 은은한 푸른 빛을 띄는 등 기존의 모니터들과 차별화되는 고품격 디자인美가 돋보인다.

특히, 삼성 싱크마스터 LED 모니터 PX2370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며, 일반 모니터 대비 약 40% 정도 전력 소모량 감소가 가능해 절전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PX2370은 에너지스타(Energystar) 5.0, 미국 EPEAT GOLD, 중국 에너지 레벨 1등급 등 국제 에너지 규격도 취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PX2370 출시에 앞서 전 세계 7개 국가에서 소비자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생생한 화질 ▲슬림한 디자인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사전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세 가지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프리미

업 LED 모니터 PX2370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진환 상무는 “삼성 싱크마스터 LED 모니터 PX2370은 디자인과 기술 측면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번 출시를 통해 LED 모니터 시장 주도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과 기술 리더십을 제품에 접목시켜 고객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본부 실적

▲ HE(Home Entertainment) 사업본부

매출액 5조 1,563억 원, 영업이익 1,820억 원. 평판TV 판매량(600만대)이 전년동기대비 58% 늘면서 사업본부 매출도 20% 늘었다. 또 각 사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안정된 수익구조로 이어졌다.

LCD TV는 해외 전 지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PDP TV는 대형 사이즈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광스토리지의 시장지배력도 강화되고 있다.

▲ MC(Mobile Communications) 사업본부

휴대폰 사업은 매출액 3조 1,396억 원, 영업이익 277억 원을 기록했다. 판매량(2,710만대)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0%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20% 늘었다. 신형시장 판매확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시장도 신제품 호조로 전분기대비 늘었다.

평가하락과 더불어 프리미엄 비중 하락, 신형시장 마케팅 투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익성은 낮아졌다.

▲ HA(Home Appliance) 사업본부

매출액 2조 3,809억 원, 영업이익 2,074억 원. 전년동기 대비 환율이 하락했지만, 북미, 아시아 지역 판매가 크게 늘어 원화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8% 늘었다. 프리미엄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56% 늘었다.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원가절감으로 거둔 1분기 수익성

(8.7%)은 분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가장 높다.

▲ AC(Air Conditioning) 사업본부

매출액 1조 1,723억 원, 영업이익 429억 원. 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있고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신형시장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매출 성장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 기준 매출로는 전년동기보다 16% 늘었다. 제품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바탕으로 수익구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 BS(Business Solutions) 사업본부

매출액 1조 2,607억 원, 영업이익 344억 원. 모니터와 차량용 단말기의 수요확대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15% 늘었다. B2B 수요가 늘고 프리미엄 비중도 높아졌다. B2B사업 확대를 위한 미래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 2분기 사업전망

TV는 성수기 영향과 월드컵 특수가 예상되며, 프리미엄 비중을 늘리게 되면 판매량과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판매량은 1분기대비 두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

가전사업도 전년대비 성장세가 이어지고, 성수기로 진입하는 에어컨은 신형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닉스, 위치 및 회전수 동시 출력 가능한 국내 최초 멀티턴 로터리 엔코더

Ø50mm 축형 멀티턴 앵슬루트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는, 23bit의 고분해능과 정밀도로 위치 데이터 및 회전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단회전 데이터, 다회전 카운트 개별 리셋 기능으로 기기 편성시 원점 맞춤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정전 보상 기능을 지원해 백업 전원이 불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업계 1위 오토닉스가 국내 최

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멀티턴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는 Parallel 출력방식과 Serial 출력방식의 라인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고정밀 모터 제어와 산업용 로봇 등의 제어에 최적입니다.

### 삼성SDI, 2010년 1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72.3% 증가

삼성SDI(사장:최치훈)는 27일(화) 실적공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연결기준으로 2010년 1분기에 매출 1조 2,049억 원, 영업이익 646억 원, 당기 순이익 4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와 PDP 사업부분이 역대 1분기 최대 판매기록과 최대 매출기록을 경신하고,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IFRS기준 적용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820억 원(17.8%), 영업이익은 271억 원(72.3%)이 각각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도래와 환율하락에 따라 1,885억 원(13.5%) 감소했지만 IFRS기준 적용에 따른 연결대상 조정 및 계정 재분류를 반영해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90억 원(16.1%), 당기순이익은 284억 원(155.2%)이 각각 증가했다.

2010년 1분기 전지사업부분에서는 업계 최고수준인 원형 고용량 3.0Ah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슬림·태블릿PC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면적 폴리머전지의 공급능력도 확대했다.

또한 ESS(스토리지) 사업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PDP사업 부분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3D PDP TV용 모듈과 화질 개선 및 저소비 전력을 실현한 '하이브리드 PDP TV'용 모듈 공급도 시작했다.

보쉬와의 합작사인 SB리모티브는 S&T모터스와 전기이륜차용 리튬이온전지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신시장 개척 및 선점에 나섰다.

### LS전선, 북미·유럽시장 공략 활발



LS전선(대표 구자열)이 23일까지 열리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미국 뉴올리언즈 국제송배전전시회 등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며 북미와 유럽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세계 60여개국 5000개사,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기계류 종합 전시회이며, 뉴올리언즈 국제송배전전시회는 520여 업체, 2만여 명이 참관하는 전력 관련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LS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과 '녹색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추어 각각 'Energy Efficiency'와 'Blue & Green Energy Solution'을 메인 컨셉으로 잡고 다양한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해저·초전도·초고압 등 차세대 케이블 솔루션과 함께, 철도, 자동차, 풍력, 선박, 해양 태양광 등 하이엔드급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손종호 사장과 조준형·최명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직접 참가하여 고객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손종호 사장은 미국 고객사 방문 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해 유럽 출장이 어려워지자,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동, 자동차로 20여 시간이 넘게 달려 하노버에 도착하여 직접 참관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 기회를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손종호 사장은 구자열 회장과 함께 26일부터 29일까지 LS전선 미국 법인인 SPSX(슈페리어 에식스)사의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경영 목표 및 기업 비전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LS전선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도 주요 임원들이 직접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그만큼 북미와 유럽 지역 공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15년 글로벌 No.1으로 자리잡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에이스테크놀로지, 전남과학대학 해군통신레이더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주)에이스테크놀로지는 4월 13일 에이스테크놀로지 본사에서 전남과학대학 해군통신레이더과 입학생 30명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전남과학대학 해군통신레이더과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 유일의 해군 전자통신분야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 학과로서, 해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사전에 실무교육을 통해 숙달하고, 소양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여 졸업 후 해군 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학과이다.

이 날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연간 3,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우수 해군부사관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대학 측에 전달했고, 학생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향후 기술지도는 물론 실습기자재 지원뿐 아니라 부사관 복무 후 전역자원에 대한 취업 부분에도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에이스애프터너스 오정근 대표이사는 “해군통신은 지상통신망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완벽한 정보통신 기술을 수행해야 하기에,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통신업계에 몸담고 있는 민간기업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 모두가 “통신레이더 분야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대한민국의 어엿한 해군기술부사관으로서, 젊은 두뇌와 기술로 국가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2009년에도 1억여 원 상당의 선박용 레이더와 각종 안테나 등의 실습기자재를 이 대학에 무상 증여한 바 있다.

### 필립스, 가정용 LED 조명 ‘리빙컬러스 미니’ 출시

(주)필립스전자 (대표: 김태영, www.philips.co.kr)가 LED 기술을 적용해 가정 조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리빙컬러스 미니(LivingColors Mini)를 4월 12일 출시했다. 리빙컬러스는 하나의 조명으로 다양한 빛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기분에 따라 조명을 조절하거나 같은 공간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리빙컬러스 미니는 256가지의 무한한 색상의 조명을 연출한다. 사용자의 기분이나 때에 맞춰 집안에서 원하는 조명 효과를 선택할 수 있어 인테리어에 개인의 취향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탁월하다. 또한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부담은 줄었으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법이 소비자를 유혹한다